

마을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관계 분석*

-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

정선기** .송두범*** .임현정****

The Relations on Sense of Community and Local Community

Chung, Sun-kee·Song, Doo-bum·Im, Hyun-jung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community of the village residents and the village activities for the villages in the city of Daejeon, which is considered to have formed village communities comparatively well.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ifference in the sense of community according to the personal traits of the village residents seem to be high in the elderly of 50s and older and in married women. Secondly, regarding the differences of residence, it was higher with longer duration of residence, higher number of family members, owner-occupied homes, and the sense of community appeared higher in people residing in apartments. However, there were no big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area. Third,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active in the village, the people who are aware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of the village and activities showed higher sense of community. Likewise, the sense of community of the residents was analyzed on the villages with relatively active community activities in the village, and though there were no regional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yet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ense of community was realized according to the awareness. Also, differences in the sense of community appeared according to the personal traits or residence. This signifies that the village community organizations must be approach the residents and the region in more familiar manner in order to heighten the sense of community of the residents. The direction of the village communication activities being actively enforced are suggested.

Keywords: Urban village, residents, community, sense of community

* 본 연구는 2015년도 충남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지원사업으로 수행하였음.

** 주저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sg3763@cnu.ac.kr

*** 교신저자,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dbsong@cni.re.kr

**** 공동저자,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cuim1230@naver.com

◇ 논문접수일: 2015. 11. 14. ◇ 논문심사일: 2015. 12. 15. ◇ 논문게재 확정일: 2015. 12. 2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는 급격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촌락공동체의 쇠퇴와 도시화를 겪었다. 짧은 기간의 이러한 변화는 인구의 단순한 이동과 도시팽창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상호작용 양상과 그 맥락까지 바꾸게 하였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도시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의미에 근본적 질문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 생활공간이 빠르게 소멸되었지만 도시에서 공동체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시 내의 특정 집단들은 그들만의 공동체 가치를 유지하고 각종 활동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간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존전략에 의해 사회집단으로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삶에서 공동체는 특정 공간을 강조하는 지역성에 국한하여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시에서 삶은 일과 가정의 분리와 잦은 이동으로 인한 이웃 또는 구성원의 익명성이 높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로 행정단위의 공간 분리는 공동체 조직과 활동의 제약이 많으며, 결국 또한 약한 편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의 해석은 도시 속에서도 마을이 갖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대안적 해결방안으로서 공동체 활동을 해석할 수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직업, 계층, 가치관, 문화적 취향 등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관계망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경험한 현대사회에서 지역공동체의 의미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라는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지역사회 형성, 동네재생, 그리고 일본의 마치즈꾸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보건, 교육, 환경, 치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험이 증가되어 왔다(곽현근, 2008).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공동체 조직은 국가발전의 필수공정이라는 인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빚은 양적 팽창과 환경 파괴적 개발로 야기된 문제가 개발과 환경의 조화, 중앙과 지방의 균형, 도시와 농촌의 상생, 성장과 복지의 병행을 아우르는 치유의 처방전으로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창조노력이 주목받고 있다(최봉익, 2008). 이에 정부는 살기 좋은 공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마을만들기와 같은 공동체 지원 사업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주민참여와 주민 주도형 지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전광역시 역시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 조직을 발굴하고 주민사업을 지원하는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마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현재까지 약 400여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의제 발굴관련 활동,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업과 마을 미디어 활동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기초적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조직과 이 곳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의 인지 및 참여 의식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전광역시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개인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와 특징을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차이가 실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식과 참여활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공동체와 공동체의식의 개념

공동체라는 말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의미가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과학적으로 정의하기 힘들며,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두루 사용되고 있다. 공동체의 개념은 소수 집단이나 동일한 직종의 구성원들과 동의어로 쓰이거나, 정신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일정 공간 또는 마을이나 도시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체 단위들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Dennis E. Poplin, 1979).

특히 현대사회 대부분의 공동체는 마을이나 읍, 도시, 거대 도시 지역과 같이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체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일상적 활동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Hillery(1955)는 공동체를 ① 지리적인 영역, ② 사회적 상호작용, ③ 공동의 유대 혹은 연대의 요소가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Hillery, 1955; 신용하 편, 1985). E. T. Hiller(1941)에 의하면 공동체는 지역적 요인들에 의해 공동체의 위치, 보편성 그리고 지속성을 설명하기도 하며 공동체 구성원이 살고 있는 지역적 환경을 끊임없이 변형시켜 나간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회집단으로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들의 결집체, 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인, 역할과 일련의 규범 등의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런 공동체 요소들의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유대와 연대를 공유한다(E. T. Hiller, 1941; 신용하 편, 1985).

즉 지역적인 변수,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유대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동체를 다양한 차원들을 고려해 보면, 지역적인 변수와 상호작용을 통한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통해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공동체의 지역성이란 특정 지역에 내재되어(embeded)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전통이 지속되었으며, 구성원 간에는 전인격적인 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이러한 지역성에 기반 한 공동체일수록 인간관계는 상호의존적이고 공동체의 규범에서 벗어날 때 강제적인 동조의 압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동의 신념과 목표가 전체 구성원들의 생활을 규제하는가의 두 차원을 교차하면 다양한 공동체의 유형화가 가능해진다(이재열, 2006).

<표 1> 지역성과 목적성에 따른 공동체의 분류

구 분		이념-목적성	
		낮음	높음
지역성 자연발생성 전통성과 지속성	높음	마을공동체	고문 야마기시공동체 신앙촌
귀속성 인격적 관계	낮음	협동조합 직능단체	이념적 결사체 시민단체

* 자료 : 이재열(2006)

전통적으로 마을공동체는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성과 공동체 활동의 목적성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말해 준다. 이때 집합의식은 동일한 사회의 주민들의 공통된 감정과 신념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의식은 개인의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특수이익과는 별개의 것이다. 오히려 집합의식은 개인들의 의식을 초월하는 존재하는 실체로서 개인의식에 대하여 규제력을 가지며 각 세대와 더불어 이후 계속되는 세대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가나, 2008).

공동체의 특징을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참여와 연대는 구성원 간의 공동체의식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일정한 공간에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공동의 의식, 연대감, 소속감, 충족감, 친밀감을 포함하는 공동체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공동체의식은 집단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상호부조와 협동단결의 모습으로 구성원집단의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요소의 하나인 공동의 연대의식으로 공동체 심리학적 용어이다. 사회학자 Nisbet(1966)은 공동체의식을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함께 경험하며, 함께 있는 것을 전제한 작은 규모의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집단의식’으로 정의한다(Nisbet, R. A., 1996; 서재호, 2013). McMillian & Chavis(1986)는 공동체의 개념에 도시와 농촌과 같은 지리적, 지역적 특징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인 생각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또한 현

신'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McMillian & Chavis, 1986; 김경준, 1998).

2.2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와 측정항목

공동체의식을 조작하거나 행동수준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Glynn(1881)의 연구 이후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공동체의식을 공동체 구조의 객관적인 평가, 공동체 내의 지원적인 관계, 공동체 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계 유형, 공동체에 참여, 공동체 환경의 특성, 공동체 안전의 6개 차원으로 측정하였다(김경준, 1998; 홍영옥·채혜원, 2004). 이후 Nasar & Julian(1995)은 이를 근린공동체에 한정된 내용만으로 축소하여 공동체 내의 지원적인 관계, 공동체 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계 유형, 공동체에 참여, 공동체 안전의 4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공동체의식을 측정하였다(홍영옥·채혜원, 2004).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로 김경준·김성수(1998)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측정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과 관계의 중요성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이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식과 사회적 결속과 관련한 집합의식으로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영옥·채혜원(2004)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공유공간의 공간만족도와 주민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틀로 공동체의식을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등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이형하(2005)는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노인 공동체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요인을 분석하는 요소로서 상호영향의식, 충족감,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을 측정하였다. 고은정·이경환·안건혁(2006)은 경기도 시흥3동의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바뀐 보행환경이 주민 커뮤니티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소속감, 자긍심, 연대의식, 친밀한 느낌의 요소를 사용하였다. 성희자·전보경(2006)는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고 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도구로 농촌지역 주민 욕구의 충족감,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연대감을 조사·분석하였다.

양덕순·강영순(2008)은 제주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박수현·김태영·여관현(2013)은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 공동체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남시의 문화공동체사업 사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욕구충족, 구성원자격, 상호영향의식,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의 공동체의식 요소를 구성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서재호(2013)는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주민과 참여하지 않는 주민 간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여 주민자치활동이 공동체의식 형성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민이 느끼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을 분석하였다.

또한, Mcmillan & Chavis(1986)는 공동체 구성원의 감정(소속감), 상호간의 영향력, 욕구

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공동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힘에 의해 서로 영향을 받는지, 또 이들 요소들이 지역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Davidson, W. B. & Cotter, P. R.(1986)는 도시단위의 특정사회집단인 지방공립학교와 지역민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원의 감정,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적 연계 등의 공동체의식 측정항목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Tartaglia(2006)는 커뮤니티의식을 정의하기 위한 확증요인으로 장소애착, 욕구충족 및 상호영향의식, 사회적 유대감을 구성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기존의 공동체의식 구성요소와 관련요인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란 “특정 공간에서 구성원에게서 받게 되는 충족감, 특정 장소·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연대감,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 개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소속감,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받게 되는 자원을 통해 충족되는 정서적 친밀감”으로 정의한다.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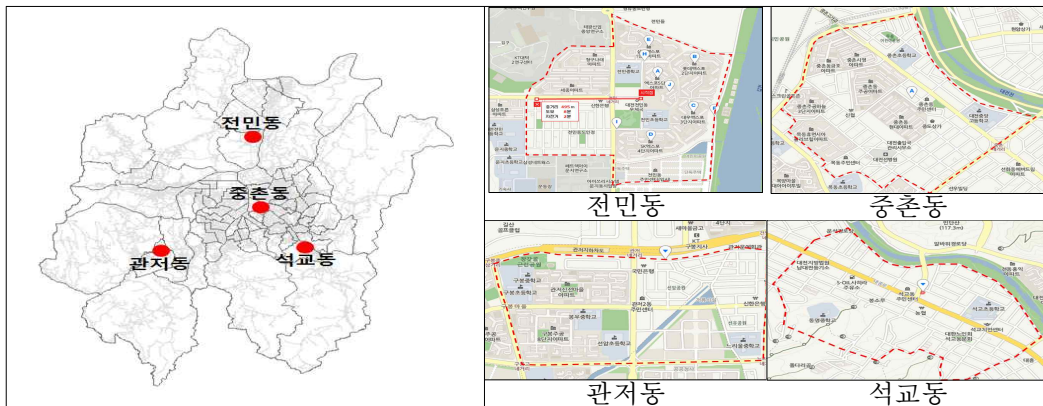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는 공공성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특징을 가진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으로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마을어린이도서관’, ‘도시농업’, ‘농촌체험 마을공동체’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마을어린이도서관 영역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박재묵 외, 2014). 본 연구의 사례분석지역은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사업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관저동, 중구 석교동, 중촌동과 유성구 전민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 마을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서구 관저동은 대전의 서남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의해 형성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며, 대전 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던 주민과 대전 외부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하여 주거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신시가지답게 대전의 타지역보다 아파트 중심의 비교적 양호한 주거지를 형성하고 그 공간 안에서 교육, 문화, 쇼핑 등의 주민활동이 가능하며, 거주민도 밀집되어 있으며 원주민 보다 이주민들이 많으며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중구 석교동은 대전의 원도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없고, 5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다. 즉 원도심 주거환경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젊은층보다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중촌동도 마찬가지로 대전의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시 최초의

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총 4개의 임대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중구의 석교동과 중촌동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시작된 단체와 활동가들이 오래전부터 거주·위치하고 있고, 공동체 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시작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성구 전민동은 과학특구단지 내에 위치한 곳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과학특구단지가 조성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지식인층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리적으로도 대전의 외곽에 위치하여 전민동 내에서 오랫동안 주민 공동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1> 조사대상 지역

이상의 4개 마을을 사례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저동의 경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젊은 연령대가, 전민동은 거주기간이 오래되어 중장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석교동과 중촌동은 대전의 원도심으로 대전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화 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오래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전민동은 과학특구단지 내 지식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즉 4개의 사례마을은 원도심과 신도시,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역, 서민층과 지식인층, 젊은층과 중장년층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차이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지로서 마을의 범위와 설정방법은 4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조직의 위치를 중심으로 행정동, 가로구획과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인구비례표집 등을 고려하여 총 450명을 표본집단¹⁾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참조).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진행하였고,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42명이 응답하였다.

1) 중구 석교동 100명, 중촌동 120명, 서구 관저동 110명, 유성구 전민동 120명의 표본집단으로 추출함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속성요인은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28.5%, 여성이 71.5%의 분포를 보였고, 연령대는 20대가 14.5%, 30대가 18.1%, 40대가 19.5%, 60대가 23.1%, 70대가 8.6%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9.7%, 일반사무직이 14.3%, 판매서비스직이 12.2%, 자영업이 15.8%, 전업주부가 31.9%로 나타났고, 학력은 고졸 34.6%, 대학졸이상 27.6%, 초대졸(2년제) 18.6%, 중졸이하 19.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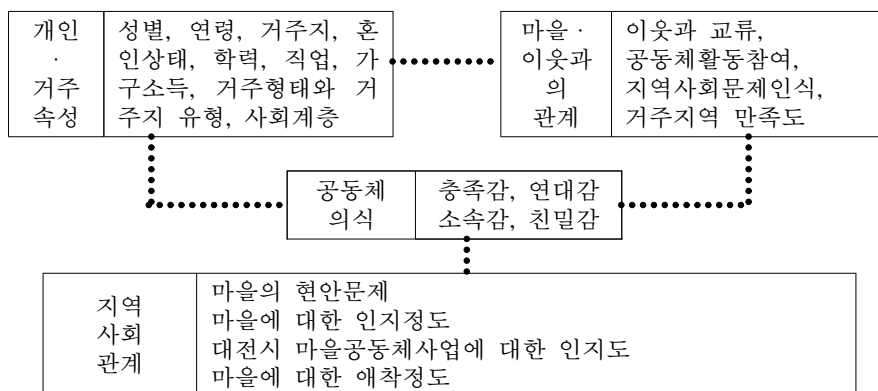
또한 거주 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맞벌이의 여부는 40.3%가 ‘하고 있다’, 59.7%가 ‘안하고 있다’로 나타났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수에 대한 항목은 ‘4인이상 가구’가 41.0%로 가장 많고, ‘2인가구’와 ‘3인가구’가 각각 25.6%, 25.8%이며, ‘1인가구’도 7.7%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 총 소득은 ‘301~400만원이하’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1~300만원이하’, ‘401~500만원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62.2%로 가장 많았고, 거주유형은 ‘자가’로 74.2%로 나타났다.

<표 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속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26	28.5	거주 기간	3년이하	32	7.2
	여성	316	71.5		5년이하	40	9.0
연령 대	20대	64	14.5		7년이하	78	17.6
	30대	80	18.1		10년이상	292	66.1
	40대	86	19.5	맞벌이 여부	예	127	40.3
	50대	72	16.3		아니오	188	59.7
	60대	102	23.1	가족수	1인 가구	34	7.7
	70대	38	8.6		2인 가구	113	25.6
직업	전문직	43	9.7		3인 가구	114	25.8
	일반사무직	63	14.3		4인 이상 가구	181	41.0
	판매서비스직	54	12.2	월평균 가구총 소득	200만원 이하	90	20.4
	자영업	70	15.8		201~300만원이하	73	16.5
	기능,단순노무직	36	8.1		301~400만원이하	124	28.1
	전업주부	141	31.9		401~500만원이하	71	16.1
	학생	17	3.8		501~600만원이하	42	9.5
	기타 무직	18	4.1		601만원이상	42	9.5
학력	중졸이하	85	19.2	주택 유형	단독,다세대	82	18.8
	고졸	153	34.6		아파트	275	62.2
	초대졸	82	18.6		연립	61	13.8
	대학졸 이상	122	27.6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23	5.2
혼인 상태	미혼	71	16.1	거주 유형	자가	328	74.2
	기혼	315	71.3		차가(전세, 월세)	114	25.8
	이혼,별거,사별	56	12.7	거주 지역	관저동	105	23.8
계층	하층	168	38.0		석교동	106	24.0
	중층	256	57.9		전민동	115	26.0
	상층	18	4.1		중촌동	116	26.2
고향	대전	261	59.0				
	다른지역	181	41.0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그림 2>와 같이 이들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관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의 조사항목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공동체의식 구성요소 중에서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 등의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충족감 5개, 연대감 6개, 소속감 5개, 친밀감 5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공동체의식을 구성하는 4개의 공동체의식 척도의 하위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의식척도로 사용하였고, 이들 변수들의 신뢰도 값인 Cronbach's α 계수가 0.800이상으로 설문항목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노형진·정한열, 2006)²⁾. 한편, 공동체의식의 측정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리커트 척도는 일반적인 5점법과 3점법, 7점법 등 다양하게 응용하여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답에 대한 불성실성과 응답회피 등을 줄이기 위해 4점법을 이용하였다.³⁾



<그림 2> 연구 모형

분석방법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에 주민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주민의 일반적인 속성인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계층, 고령, 거주기간,

- 2)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00, 조직단위의 분석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600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3) 최초 개발된 리커트척도는 5개의 응답반응 수로 구성되었으나 응답반응에 따라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다양화되었다(강혜영, 2015). 중립반응이 없는 짝수척도는 피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변별해 낼수 있고(Doyle, 1975; Nunnally, 1978; 강혜영, 2015), 중립반응이 없으면 더욱 분명하게 피험자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피험자의 중립반응을 선택하여 측정치의 분산을 방해할 수 있다(Dumas, 1999; 강혜영, 2015). 또한 응답에 대한 불성실성, 문항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회피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Converse & Presser, 1986; 강혜영, 2015). 일반적으로 검사의 문항 수는 신뢰도와 관련되지만, 피험자의 피로도 및 동기가 저하될 수 있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Allen & Yen, 1979; 강혜영, 2015).

가족수, 월평균, 가구총소득, 주택유형, 거주유형, 거주지역 등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 공동체의식 구성요소와 지역사회 관심, 참여, 애착정도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측정항목의 신뢰도 검증과 각 집단 간 공동체의식 차이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분산분석 등을 이용하고, 각각의 공동체의식 지표와 개인·가족 속성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명확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표 3> 공동체의식 측정항목의 구성과 신뢰도 분석

측정항목		Cronbach's α
총족감	1) 나는 우리 마을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830
	2) 나는 우리마을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3) 마을 사람들은 공동의 가치를 나누고 있다	
	4) 우리마을의 주민들은 서로 이해하고 의지한다	
	5) 우리 마을사람들은 같은(비슷한) 것을 원한다	
연대감	6) 나는 우리 마을이 (고향같이)친근하게 느껴진다	.834
	7) 나는 마을이웃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느낀다	
	8) 나는 우리 마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9) 나는 함께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알아본다	
	10) 우리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알아본다	
	11) 우리 마을은 단결이 잘된다	
소속감	12) 나의 행동에 대해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인다	.814
	13) 내가 노력하면 우리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우리 마을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 우리 마을은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16) 우리 마을에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친밀감	17) 나는 우리 마을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	.881
	18) 우리 마을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린다	
	19) 마을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20) 마을에는 가족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21) 마을에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 분석 결과

4.1 개인 및 거주 속성과 공동체의식의 차이

1) 개인속성과 공동체의식 차이

개인이 가지는 속성에 따라 느끼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성별, 연령, 직업, 학력, 혼인상태,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에서 마을 공동체의식이 높고, 직업별로는 마을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가 높으며,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공동체의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인속성과 공동체의식 차이 분산분석 결과

구분		공동체의식	
		평균	F-Value
성별	남성	2.68	1.945
	여성	2.75	
연령대	20대	2.37	10.152**
	30대	2.78	
	40대	2.78	
	50대	2.82	
	60대	2.80	
	70대	2.76	
직업	전문직	2.70	6.099**
	일반사무직	2.66	
	판매서비스직	2.65	
	자영업	2.87	
	기능,단순노무직	2.60	
	전업주부	2.84	
	학생	2.26	
	기타 무직	2.57	
학력	중졸이하	2.82	1.732
	고졸	2.74	
	초대졸	2.66	
	대학졸 이상	2.71	
혼인 상태	미혼	2.40	26.140**
	기혼	2.81	
	이혼,별거,사별	2.69	
계층	하층	2.69	1.163
	중층	2.76	
	상층	2.75	
고향	대전	2.68	8.230*
	다른지역	2.81	

주) ** p<0.01, * p<0.05, + p<0.1

2) 거주속성과 공동체의식 차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은 거주 관련 속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체의식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자가주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와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관저동이, 소득별로는 ‘401~600만원이하’가 공동체 의식과 높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거주속성과 공동체의식 차이 분산분석 결과

구분		공동체의식	
		평균	F-Value
거주기간	3년이하	2.48	5.902**
	5년이하	2.71	
	7년이하	2.63	
	10년이상	2.79	
가족수	2인 가구	2.67	0.803
	2인 가구	2.74	
	3인 가구	2.69	
	4인 이상 가구	2.76	
월평균 가구총 소득	200만원 이하	2.69	0.546
	201~300만원이하	2.70	
	301~400만원이하	2.73	
	401~500만원이하	2.79	
	501~600만원이하	2.79	
	601만원이상	2.73	
주택유형	단독,다세대	2.75	1.233
	아파트	2.75	
	연립	2.65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2.64	
거주유형	자가	2.74	1.052
	차가(전세, 월세)	2.69	

주) ** p<0.01, * p<0.05, + p<0.1

4.2 지역별 공동체 의식 및 지역사회 참여의 차이

1) 지역별 공동체 활동의 인지와 공동체 의식의 차이

사례지역은 비교적 대전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활발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다. 이들 마을에서는 전술한 <표 7>과 같이 다양한 공동체 조직이 있고, 이들 조직들은 많은 공동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인지도의 차이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역별 공동체 조직 및 조직활동에 대한 인지 차이 교차분석 결과
단위 : 명(%)

구분	모르고있다	알고있다	chi-square
관저동	46(43.8)	59(56.2)	2.937
석교동	45(42.5)	61(57.5)	
전민동	40(34.8)	75(65.2)	
중촌동	52(44.8)	64(55.2)	
전체	183(41.4)	259(58.6)	

주) ** p<0.01, * p<0.05, + p<0.1

하지만, 지역별 공동체의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관저동이 가장 높고, 석교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지역별 공동체의식의 차이

구분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조직명	F-value
관저동	두리하나, 책마루, 몰라쟁이엄마, 관저홍베이커리,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저공동체연합, 관저품앗이공동체, 관저마을신문, 동그라미, 마을환경지킴이, 원앙서실, 청소년 드림팀 등	2.82
석교동	알짹마을어린이도서관, 협동조합참죽다, 청소년 문화카페, 석남회, 석교마을미디어센터, 교육공동체한뎡더, 등	2.63
전민동	글결고운, 시민참여연구센터, 푸른맑음공동체, 미술공감편편아트, 전민마을숲사랑모임, 모퉁이어린이도서관, 모화가 등	2.74
중촌동	포트락, 책을사랑하는아줌마들의모임, 풀뿌리여성마을숲, 중촌마을축제추진단, 옛이야기머무는마을엔.,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 등	2.73

주) 위의 공동체조직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는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

** p<0.01, * p<0.05, + p<0.1

또한, 마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조직의 인지여부에 따라 공동체 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거주지역 내 공동체조직 및 활동에 대하여 ‘알고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모르고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공동체조직의 인지여부에 따른 공동체의식 차이 분산분석 결과

지역	모르고있다	알고있다	F-value
관저동	2.5735	3.0137	2.951*
석교동	2.3365	2.8493	
전민동	2.4952	2.8698	
중촌동	2.5641	2.8668	
합계	2.4954	2.8970	

주) ** p<0.01, * p<0.05, + p<0.1

한편,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지역별 공동체의식과의 차이를 보면 <표 9>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 마을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조직의 특성과 주거지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체의식 구성요소별로는 전체적인 경향은 마을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즉, 충족감과 친밀감이 소속감과 연대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 지역별 공동체의식 차이 분산분석 결과

구분		거주지역				
		관저	석교	전민	중촌	F-Value
공동체 의식	충족감	2.94	2.75	2.88	2.84	2.734*
	연대감	2.74	2.55	2.62	2.64	2.430*
	소속감	2.76	2.59	2.74	2.69	2.481*
	친밀감	2.85	2.65	2.75	2.77	2.226*

주) ** p<0.01, * p<0.05, + p<0.1

2)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참여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물질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 지역의 각종 주민활동을 통해 자원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배우고 내면화함으로써 주민들은 공동체의 이상을 지향한다(김왕배, 2000). 이러한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찾아내어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추구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착으로 이어져 주거의 만족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 결속력에 대한 조직화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 결속력이 강할수록 지역사회 내의 긴장영역이 작거나 부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강철희·홍현미라, 2002; 이형하, 2005)

이에 공동체의식과 개인 및 가족 속성과 마을의 관심과 인지, 애착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순위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정도는 공동체의식 측정 요소 중에서는 충족감과 친밀감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마을에 대한 인지정도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마을에 대한 애착정도는 모두 충족감과 친밀감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에는 연대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에 기초하여 공동체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대감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및 거주특성에 따라서는 전술한 분산분석 등과 마찬가지로 몇몇 속성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직업별로는 전문직에 비해 대인관계 직업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와 마을에서 활동 시간이 많은 주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높게 나타났다.

<표 10> 공동체와 지역사회 인지·애착과의 관계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한 인지정도	마을에 대한 인지정도	마을공동체사업 에 대한 인지도	마을에 대한 애착정도
마을 공동체 의식	1) 총족감	1.6879**	2.1188**	1.5514**	2.8606**
	2) 연대감	0.4055	-0.4949	0.5723+	-0.0696
	3) 소속감	0.1531	0.1893	0.2202	0.1411
	4) 친밀감	1.1418*	0.5313	1.0178**	0.8601+
개인	5) 성별	0.1169	-0.2311	0.3913	-0.3619
	6) 연령대	-0.0302	-0.0432*	-0.0501**	0.0074
	7) 직업 (전문직)	일반사무직	0.0671	0.1415	0.1587
		자영업	1.1893*	1.7530**	1.1822**
		단순노무직	0.5284	-0.1683	0.3208
		전업주부	1.8927**	1.3683**	1.2150**
	8) 학력 (중졸이하)	고졸	-0.2682	-0.5501	-0.0511
		전문대졸	-0.9970+	-1.9190**	0.0436
		4년대졸	-0.1087	-1.1752*	0.1243
	9) 혼인상태 (미혼)	기혼	2.1767**	1.4331**	1.8911**
		이혼, 별거, 사별	1.1587	0.4809	1.9561**
가족	10) 거주기간	-0.0079	0.0179	-0.0273*	-0.0095
	11) 가족수	0.1259	-0.0246	-0.0196	0.0764
	12) 가구소득	0.0010	0.0001	0.0029**	-0.0009
	13) 주택유형 (단독)	아파트	1.1443**	0.1451	0.4288+
		연립주택	1.0000*	0.2937	0.7422*
		기타	1.0476*	0.4474	0.4965
	14) 소유유형 (e17R)	-0.0725	0.0891	0.1168	-0.3277
15) 거주지역 (관저동)	석교동	0.5523	0.1212	0.7198*	0.0340
	전민동	0.0779	-0.5360	0.0576	-0.4692
	중촌동	-0.0588	0.2217	-0.0266	0.0156
Constant cut1		5.2584**	1.1762	8.5029**	3.9180*
Constant cut2		10.7719**	4.0184**	10.9403**	9.6188**
Constant cut3		15.5366**	9.0109**	14.3684**	16.0876**
Observations		442	442	442	442
Pseudo R-squared		0.3523	0.2590	0.2763	0.3982

주)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더미변수의 기준변수임.

5. 결론

한국사회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 조직들이 생겨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도시공간의 근린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본 연구 사례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마을 주민의 공동체의식의 차이와 특성을 분석하고, 공동체 조직 및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가지는 속성에 따른 마을 공동체의식은 성별, 연령, 직업, 학력, 혼인상태,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마을 공동체의식이 높았고, 미혼보다는 기혼, 전업주부가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주민이 공동체의식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주민의 거주 관련 속성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관계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공동체의식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자가주택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조직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각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조직과 활동의 인지 여부가 주민의 공동체의식에도 상호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조직의 홍보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셋째, 공동체의식의 세부 측정 요소도 사례지역 간의 공동체의식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충족감과 친밀감이 사례지역에 관계없이 높고, 연대감과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동체의식의 발전단계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마을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마을에 대한 인지정도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마을에 대한 애착정도는 충족감과 친밀감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는 공동체의식 중에서 연대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의 충족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연대감을 높이는 정책 단계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본 마을공동체의식은 거주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마을이라는 공간에 오래 머무르고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결혼을 경험한 주부와 자영업자의 공동체의식이 높았으며, 마을 공동체조직과 활동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공동체의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공간에서의 이웃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공동체를 조직하여 다양한 활동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형성된 주민 공동체의식은 마을에 대한 애착과 관심에도 영향을 주며, 이런 관심은 지역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도 영향을 주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대전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전광역시 시민의 공동체의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향후 대전광역시 일반시민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와 마을에서 공동체조직과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분석하여 일반 주민과의 공동체의식의 차이와 특징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혜영(2015), “리커트척도(Likert Scale) 응답 형식 검사의 조건에 따른 기준점설정 방법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2] 강철희·홍현미라(2002), “지역사회결속력(Community Solidari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43-77.
- [3] 광현근(2008), “현대 지역공동체의 의의와 형성전략”, 「한국사회와 공동체: 이종수 편」, 서울: 다산출판사
- [4] 고은정·이경환·안건혁(2006),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보행환경의 변화가 커뮤니티 의식에 미치는 영향-시흥3동 담장허물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7(4), 77-86.
- [5] 김정준(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6] 김정준·김성수(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3(2), 211-232.
- [7]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서울: 도서출판 한울.
- [8] 노형진·정한열(2006), 「한글 SPSS 기초에서 응용까지」, 서울: 형설출판사.
- [9] 박가나(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10] 박수현·김태영·여관현(2013), “문화마을만들기에서의 공동체 의식 형성요인 연구-성남시 우리 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5), 207-230.
- [11] 박재묵·김도균·민병기·임현정(2014), 「대전시 마을공동체의 현황과 실태조사」,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 [12] 서재호(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4(2), 437-459.
- [13] 성희자·전보경(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149-170.
- [14] 신용하 편(1985), 「공동체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15]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16] 이형하(2005),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마을 노인의 공동체 의식 형성요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28, 231-25.
- [17] 이재열(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심포지엄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재활성화를 위하여」 발제자료.
- [18] 최봉익(2008), “지역공동체 회복”, 「한국사회와 공동체: 이종수 편」, 서울: 다산출판사.
- [19] 홍형욱·채혜원(2004),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자관리, 공유공간 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95-105.
- [20] Allen, M. J. & Yen, W. M.(1979), Introduction to measurement theory, Monterey, CA: Books/Cole.
- [21] Converse, J. M. & Presser, S.(1986), 「Survey question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22] Davidson, W. B. and Cotter, P. R.(1989),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Sphere of City” ,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7), 608-619.
- [23] Dennis E. Poplin(1979),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 「The Concept of Community」 ,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25.
- [24] Doyle, K. O.(1975), 「Student evaluation of instruction」 ,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25] Dumas, J.(1999), Usability testing methods: Subjective measures. Part II- measuring attitudes and opinions.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Usability Professional's Association. 153-162.
- [26] Glynn, T.J.(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 *Human Relations*, 34, 789-818.
- [27] E. T. Hiller(1941), “The Community as a Social Group”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189-202.
- [28] Hillery, G. A.(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 *Rural Sociology*, 20, 111-123.
- [29] McMillan, D. W. & Chavis, D. M.(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30] Nasar, J. L. & Julian, D. A.(1995),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Sense of Community in the neighborhood” ,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2), 178-184.
- [31] Nisbet, R.A.(1966), 「The Sociological Tradition」 , NY: Basic c.
- [32] Nunnally, J.(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 New York: McGraw-Hill.
- [33] Stefano Tartaglia(2006), “A preliminary study for a new model of sense of community” ,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1), 25-36.